전북도, 투자유치 11조원 돌파

이차전지 발판… 새만금, 황금의 땅으로

미래전략산업 전환… 김 지사 직관력 · 결단력 적중
1년 반 만에 이차전지 기업 23곳 9조원 넘는 투자 협약

전북도는 전북과 새만금이 국가첨단전략산업 중 하나인 이차전지분야를 발판삼아 황금의 땅으로 변하고 있는 중심에 김관영 도지사의 직관력과 결단력이 적중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민선 8기 전북도정을 이끌게 된 김 지사는 전북경제 부흥을 도정 1과제로 삼고 기업유치 활동 전면에 나서면서 전북의 산업지형을 미래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재편하기 위해 주목한 산업분야가 바로 이차전지 산업이다.

반영구적 사용이 가능한 데다 연관기업의 확장성이 큰 이차전지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삼아 불모지라 치부하던 새만금을 취임 후 단 1년여만에 '친환경 이차전지 밸리'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전북도가 집계된 통계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지난 3년간 이차전지 관련 기업 투자협약 체결은 올해 12월말 기준 모두 30건, 이 가운데 민선 8기가 출범한 지난해 7월 이후 협약을 맺은 기업은 23개사.

이들 기업의 투자 금액은 9조 1,146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김관영 전북도정이 역대 도정에 비해 단기간에 압도적 투자실적을 보인 것은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도백의 강한 의지와 미래산업을 내다보고 전략산업을 재편하는가 하면 기업유치에 필요한 도정의 혁신이 성과를 배가시켰다는 여론이다.

김 지사는 "기업유치를 통한 전북 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는 일이라면 지구촌 어디든,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찾아나서겠다"는 자신의 강한 의지를 수차례 나타내며 국내 굴지의 기업들을 반복적으로 방문해 전북의 강점과 미래 지향성 등을 직접 설명하면서 기업이 요구하는 각종 지원 제도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왔다.

김 지사가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 국가의 돈줄을 잡고 있는 기획재정부격인 과거 중앙 부처 경제기획원에서 각각 경력을 쌓으면서 맺은 두텁고 폭넓은 인맥을 십분 활용해 기업인들과의 접촉을 더욱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북도의 기업유치는 현재진행형이다.

기업유치추진단과 기업애로해소지원단을 도지사 직속기구로 편제하고 신규 기업 유치는 유치대로, 유치기업과 기존 향토기업들의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전라북도 1기업-1공무원 전담 기업애로해소 지원시스템'을 도내 전 시·군이 함께하기로 하는 등 친기업정서가 더욱 높아진 전북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도는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각종 제도와 시책들을 손질해 나가는 동시에 진정성과 열정으로 기업을 파고 들며 국내외 기업들을 유혹하고 있는 김관영 도정이 반환점을 돌게 되는 내년도 기업유치활동에 더욱 기대를 모으게 되는 대목이다. /김재훈 기자

"당장 필요한건 통합 비대위 구성"

민주 이원욱 의원, 한동훈 국힘 비대위장 불출마 선언에
"이재명 대표에게 던지는 메시지… 당대표직 사퇴해야"
3총리 통합 선대위 관련 "이재명 꼼수… 공천은 스스로가"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내년 국회의원 선거 불출마 선언을 두고 "이재명 대표에게 던지는 메시지"라며 이 대표 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이 대표도 불출마해야 하냐고 묻는 진행자 질문에 "당장 필요한 것은 통합 비대위 구성을 위한 당대표직 사퇴"라며 "당대표직을 계속 갖고 불출마를 하는 것엔 커다란 의미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대표를 빨리 내려놓고 통합 비대위를 구성하자"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의원은 최근 이 대표가 당내 현안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데 대해 "이 대표가 자기한테 불리한 내용, 대답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한 질문이 들어오면 동문서답하거나 대답을 안 한다"며 "한국 정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한국 정치의 근본 문제에 대한 성찰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가 묵언수행을 계속하는 것, 통합 비대위 수용에 대한 답변을 미루고 있는 것은 국민통합을 바라는 국민의 보편적인 생각에 대한 성찰이 없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당내 일각서 문재인 전 정부 총리 3명(김부겸·이낙연·정세균)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선 "그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그건 이 대표의 꼼수"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그러니까 공천은 내가(이 대표가) 다 하는 것"이라고 봤다. 또 "만약에 총선에서 지면 내가 책임지지 않겠다 이런 내용인 것"이라며 "권한 없는 선대위원장 맡아서 들러리 서 달라고 하는 건데 그것을 삼총리가 받을 것인가. 저는 절대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비대위원장의 전날 취임 일성에 대해선 "영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자신의 지지 기반을 단단히 하고 확장하기 위한 전략을 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미동맹이 아닌 한미공조란 용어를 사용하는 등 운동권 단어이자 정치권에 팽배해 있던 구시대적 발언을 뛰어넘어 새로운 용어를 사용한 것은 영리해보인다"고 봤다.

이 대표를 겨냥한 한 위위원장 지적에 대해서도 "이 대표의 민주당만이 아니고 민주당 전체가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잘 지적해준 것 같다"고 진단했다. /뉴시스

27일 여의도 콘래드 서울에서 2022년 5월 현 정부 출범 이후 새만금 국가산단 민간 투자유치 10조원 달성 기념행사에 김관영 도지사,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유의동 국회의원, 정운천 국회의원, 강임준 군산시장, 새만금 입주기업 임직원, 재경 전북기업인 등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의 10조원 민간투자유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현 정부 출범 후 새만금 산단 투자유치 10조원 달성'

지난 2013년 새만금청 개청 후 9년간의 6.7배 초과 성과
도 · 새만금청 · 군산시 등, 미래커롱에너지 · 백광산업과
양극재용 · 이차전지용 전구체 소재 제조시설 건립 협약

전북도(도지사 김관영)와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2023년 12월 27일 여의도 콘래드 서울에서 2022년 5월 현 정부 출범 이후 새만금 민간투자 10조원 달성을 축하하는 '새만금 국가산단 투자유치 10조원 달성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유의동 국회의원, 정운천 국회의원, 이원택 국회의원, 강임준 군산시장, 새만금 입주기업 임직원, 재경 전북기업인 등 160여명이 참석해 새만금의 10조원 투자유치를 축하했다. 이는 지난 2013년 9월 새만금개발청 개청 이후 9년간의 6.7배(1.5조원)를 초과하는 실적으로, 그동안 투자유치에 대한 새만금청과 전북도의 노력이 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결합해 달성한 개청 10주년에 걸맞는 투자유치 성과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친(親)기업정책의 일환으로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이 이뤄졌으며, 새만금청의 원스톱 지원, 전북도의 1기업 1공무원, 밸류체인(가치사슬) 형성이 가능한 기업 발굴 등 협업기관 모두 기업유치를 위해 노력해왔다.

향후 10조원 투자유치를 시작으로 공장 건설과 가동, 고용 증대 등 내실있는 후속성과로 이어가 새만금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날 10조원 달성 기념행사에서 미래커롱에너지㈜의 '양극재용 전구체 및 황산니켈' 생산시설 건립과 백광산업㈜의 '이차전지용 전구체 소재 및 반도체 소재' 제조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식도 함께 진행됐다.

미래커롱에너지㈜는 미래나노텍㈜과 중국 커롱뉴에너지가 공동 설립한 회사로, 약 19만㎡(약 5만8,000 평) 부지에 내년 1분기 중 착공해 총 8,000억원을 투자하고 약 650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백광산업㈜은 약 10만㎡(약 3만2,000평) 부지에 2024년 상반기 중 공장을 착공하여 국내 전해질염 기업에 삼염화인과 오염화인 10만 톤을 공급하고, 전구체 소재(가성소다 및 고순도 염소)와 반도체 소재(삼염화붕소) 등을 생산할 계획으로, 총 투자액은 3천억 원이며 390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삼염화인과 오염화인을 중국으로부터 전량 수입해 왔으나, 이번 투자로 수입량의 대부분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일본에서 수입해오던 반도체 공정 핵심 가스인 삼염화붕소도 국산화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군산=김판곤 기자

"국방 교재, 정권 홍보물로 전락"

민주 홍익표 원내대표 "노골적인 선거운동 시도
정치 중립성 훼손 · 꼰대문화 강요 · 역사 왜곡 퇴행"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개정 발간된 국방부의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가 정권홍보물로 전락했다며 노골적인 선거운동 시도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는 '장병 정신전력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해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개정 발간했다. 그러나 군의 생명과도 같은 정치 중립성을 훼손하고 MZ세대 군인들을 무시하는 꼰대문화 강요, 역사를 왜곡하는 퇴행으로 점철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영삼 정부 이래 모든 정부는 군의 정치적 중립을 사회적 합의로 지켰다"며 "2019년 민주당 정부에서 발간된 교재에는 특정 대통령에 대한 찬양 서술이 없고, 현직 대통령(문재인) 사진 한 장 없다. 그러나 (이번 교재는) 특정 인물에 대한 노골적 찬양·미화와 함께 윤 대통령 사진과 연설문으로 도배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국방 교재가 정권 홍보물, 뉴라이트 교재로 전락한 것"이라며 "정치 중립성 훼손 및 총선을 앞두고 노골적인 선거운동을 시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꼰대문화 강요와 역사왜곡도 문제"라며 "자유민주주의와 군인 본분에 충실한 장병들을 무시한 '까라면 깐다'식의 구태 꼰대문화 강요로 병영혁신에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쿠데타를 '일부 과오'로 서술하거나 일본과의 역사·영토 문제 삭제한 채 무조건적 협력 강조로 오히려 안보의식을 흐릿하게 만들었다"고 전했다.

홍 원내대표는 "결과적으로 정신전력 강화는커녕 군대를 정치의 장, 갈등과 분열의 전쟁터로 변질시키게 됐다"며 "국방부는 엉터리 교재 발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민주당은 해당 교재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 등 조치를 취하겠다"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교재 사용을 하루빨리 중단시켜라.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은 모든 형태의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이재명 대장동 의혹' 제보 이 전 총리 최측근 '남평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최초로 언론에 제보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 측근은 남평오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남 전 실장은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대장동 의혹의 최초 언론 제보자가 나인 것은 맞다"고 밝혔다.

대장동 의혹은 박종명 경기경제신문 기자가 2021년 8월 31일 '이재명 후보님, 화천대유자산관리는 누구 것입니까?'라는 제목의 기자수첩에서 익명의 제보에 근거해 처음으로 제기했다.

지난 22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박 기자는 보도 경위와 관련 "이낙연 당시 후보의 최측근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다"면서 일각에서 거론하는 친낙계 윤영찬·설훈 의원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뉴시스

'내년도 정읍 국가예산 확보… 4년 연속 정부 예산신장률 이상'

민주 윤준병 의원 "전년 5447억 대비 3.1% 증액… 5648억원"
정부예산 증가율 2.8% 소폭 상회… 경기침체 우려 속 이뤄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내년도 정읍시 국가예산으로 전년 5,447억원 대비 171억원(3.1%) 증가한 5,648억원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정부예산 증가율(2.8%)를 소폭 상회하는 수치로 세수감소, 경기침체 우려 등 녹록치 않은 대내외 여건하에 이루어낸 값진 성과이다.

특히, 2021년부터 2024년 예산까지 4년 연속 정부 예산신장률보다 높은 국비확보 신장률을 달성해 '지역현안 해결사'로서 면모를 발휘했다.

2024년 국가예산 주요 신규사업은 △국립 숲체원 조성, △정읍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그린바이오소재 첨단분석시스템 구축사업, △장명동 각시다리터 주변(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사업, △수성2·3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산내면 매죽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등 16개 사업, 총사업비 1,039억원 규모이며, 정읍시의 기초인프라 구축·첨단산업의 지속발전·안전하고 쾌적한 주민 생활환경 조성·다양한 문화체험공간 확충 등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다.

정읍 핵심 신규 사업들이 정부예산에 대거 반영됨에 따라 정읍의 미래먹거리를 책임질 신성장동력 종잣돈이 마련됐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윤 의원은 연초부터 정읍시와 함께 중앙부처·기재부 등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사업의 타당성 및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예산확보를 위한 전략적인 실시간 대응활동을 펼쳐 국가예산 확보에 크게 기여했다.

윤준병 의원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함께 애써주신 이학수 정읍시장, 전북도 및 정읍시 관계 공무원 그리고 주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확보된 사업의 빠르고 원활한 추진과 새로운 사업 발굴을 통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북선관위, 공명선거관리 유공자 13명 표창

조합장선거 · 재선거 관리 적극 협조 공로 인정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오재성)는 지난 26일 오후 3시 전북선관위 4층 회의실에서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과 민주주의 발전 등에 기여한 선거 유공자 13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였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이들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농협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상반기 재선거의 성공적인 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오재성 위원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공적인 선거를 치러낼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을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의 헌신적인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며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으며, 다가올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김재훈 기자